

삼성, OS 독립을 꿈꾸는가?

곽상영 EBS IT 운영부 과장



[그림 1] Tizen Lockup

성전자가 개방형 멀티플랫폼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최초로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14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런칭 행사를 열고 타이젠 기반 스마트폰 '삼성 Z1'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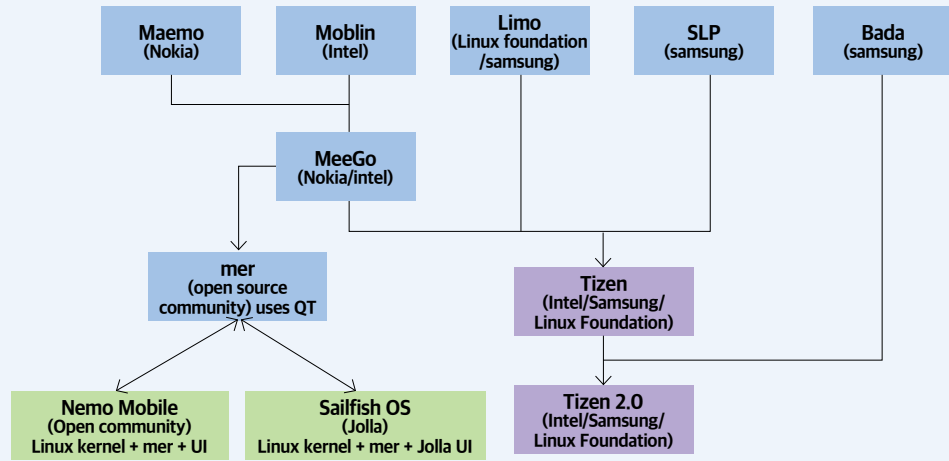
'삼성 Z1'은 가볍고 빠른 타이젠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손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인도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현지 특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 뉴스와이어 (<http://www.newswire.co.kr>) 2015년 1월 14일

안드로이드(Android)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많은 스마트 폰이 채택하고 있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이다. iOS라는 이름은 익숙한가? 보통 기기 모델명인 아이폰(iPhone) 혹은 아이패드(iPad)로 많이 불리지만, 이 기기에서 사용되는 OS는 iOS라고 한다. 그럼 혹시 타이젠(Tizen)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OS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만일 알고 있다면 IT, 모바일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쪽 분야의 트렌드를 무척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타이젠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세상에 나타난 OS는 아니다. 모바일 OS의 세계에서 애플의 iOS와 구글의 Android가 자웅을 다투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수많은 모바일 OS들이 제3의 OS의 자리를 꿈꾸며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다. 칩셋 제조업체인 Intel은 모바일 OS에서 사용되는 주요 칩셋이 자사의 것이 아니라는 위기감으로 그들의 칩셋을 사용하는 OS를 내놓으려 했고, 유럽의 핸드폰 강호 노키아는 사라진 영광을 다시 찾으려 애쓰고 있었으며, PC 소프트웨어 강자 Microsoft는 PC 세계에서의 권위를 모바일에서도 이어가고자 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삼성의 '바다' OS도 기기 제조분야에 한정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삼성의 노력이었고, 그런 그들 중의 하나였다. 수많은 OS가 나름의 이유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경쟁하였고, 그중 일부가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 타이젠이 탄생하게 되었다.

타이젠은 LiMo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되던 LiMo Platform¹⁾이 2011년 11월 타이젠으로 이름을 바꾸어 공개된 것으로, LiMo Foundation은 인텔이 합류하면서 2012년 1월에 조직명을 Tizen Association(타이젠 협회)으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 4월 30일 버전 1.0을 발표한 이래 현재는 삼성과 인텔의 주도 하의 타이젠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리눅스 커널과 GNU C Library를 기반으로, HTML5 위주의 웹 언어군(Javascript, CSS 등)과 C++을 개발언어로 하고 있다. 본 글을 작성하는 현재, 공식



[그림 2] 타이젠과 관련된 모바일 소프트웨어 배포판

개발자 사이트에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Web, Mobile, Wearable Application의 3가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환경으로 웹앱과 네이티브앱 개발을 위한 Tizen SDK 2.3.0 버전과 Wearable 기기를 위한 웹앱 개발에 사용되는 Tizen SDK for Wearable 1.0.0이 배포되고 있다.²⁾

한국에 아이폰이 상륙하기 전, 지금 우리가 피쳐폰이라 부르고 있는 핸드폰이 주를 이루던 태평성대(?)의 시대가 지나가고 2009년 말, KT를 통해 아이폰이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면서 시장에는 전운이 감돌게 된다. 한국에도 스마트폰의 시대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의 각 업체들은 대응책으로 당시 유일한 대안으로 보였던,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도입한다. 결과적으로 삼성과 구글의 조합은 나쁘지 않았다. 안드로이드 OS 점유율 확대를 원하던 구글과 기기 시장의 점유율 방어를 원하던 삼성의 조합은 나름 성과를 내며 애플과 대등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외형적인 규모에서는 애플의 iPhone과 1, 2위를 다투만한 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합전선은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안드로이드는 언제까지 과연 만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완전히 오픈된 OS인가?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균열의 이유와 전개는 분명해진다.

시장의 균형이 애플과 구글&삼성의 두 진영으로 양분되는 모양새로 자리 잡아 가던 2011년 8월경,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를 발표했다.³⁾ 세간의 해석은 당시 치열했던 특허소송에서 모토로라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를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던 구글과 한때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강자였지만 시대의 흐름을 놓쳐버린 모토로라의 부진이 절충되어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었다. 2014년 1월 구글은 중국의 레노버에게 모토로라의 인수 시 확보한 특허 대부분은 보유한 채,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만, 당시로선 구글의 소프트웨어와 모토로라의 기기제조 능력이 결합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상징성을 보여주었다.

Period	Samsung	Apple	Lenovo*	Huawei	Xiaomi	Others
Q4 2014	19.9%	19.7%	6.5%	6.3%	4.4%	45.7%
Q4 2013	28.9%	17.5%	6.4%	5.7%	2.0%	39.5%
Q4 2012	29.1%	20.9%	5.5%	4.6%	0.9%	39.0%
Q4 2011	22.5%	23.0%	5.1%	3.5%	0.1%	45.7%

[표 1] Worldwide Smartphone Vendor Market Share / 출처 : IDC, 2014 Q4

Period	Android	iOS	Windows Phone	BlackBerry OS	Others
Q4 2014	76.6%	19.7%	2.8%	0.4%	0.5%
Q4 2013	78.2%	17.5%	3.0%	0.6%	0.8%
Q4 2012	70.4%	20.9%	2.6%	3.2%	2.9%
Q4 2011	52.8%	23.0%	1.5%	8.1%	14.6%

[표 2] Worldwide Smartphone OS Market Share / 출처 : IDC, 2014 Q4

삼성이 자체 OS의 개발을 시작하고자 한 것은 구글의 이런 행보가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2007년 출시된 아이폰이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진출이 초읽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은 비밀리에 대항마를 준비하였고, 2009년 12월 8일 런던에서 스마트폰 OS '바다'의 출시 행사를 하고 개발도구인 '바다 SDK'를 공개한다.⁴⁾ 그리고 다음 해 5월 유럽에서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바다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100만대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다.⁵⁾ 한국에는 KT를 통해 '웨이브 3'이 출시되기도 했으나, 아직 불안한 OS 성능과 콘텐츠 부족 등 성숙하지 못한 바다 플랫폼의 생태계는 '바다'가 더 큰 물결을 일으키는 넓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약점이 되었다. iOS와 Android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의 안정성과 경쟁 관계인 기기 제조업체 삼성이 만들어내는 '바다' OS는 타 기기 제조업체에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었다. 2013년 2월 24일 삼성전자의 홍원표 사장은 '바다'가 타이젠으로 흡수 합병되었음을 선언하며 바다 OS의 개발 종료를 선언했다.⁶⁾ 그리고 Tizen 2.0부터 바다가 타이젠의 Native application framework로 통합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림 3] Tizen Architecture

타이젠이 모바일 OS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고 생태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기에 탑재되고, 배포되어 사용자, 개발자 층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2015년 1월 오랜 준비 끝에 인도, 2월 방글라데시에서 'Z1'이라는 10달러 미만의 중저가 폰으로 출시했다. 이미 2강 체제로 굳건해져 버린 유럽이나 북미, 한국과 일본 등에 비해 인도는 아직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12.8% 정도로 낮아⁷⁾ iOS와 Android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 OS의 성능만 담보된다면, 승부를 걸어볼 만한 곳이기도 하다. 'Z1'을 출하하면서 삼성은 타이젠의 정체성을 '개방형 멀티 플랫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는 타이젠이 스마트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목적성의 제시이면서 전략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타이젠은 'Z1'이라는 스마트폰의 출시에 앞서 삼성 기어 시리즈에 먼저 탑재되기 시작했는데,⁸⁾ 이에 대해 구글은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의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가 삼성이 스마트 시계 플랫폼으로 타이젠을 밀고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삼성이 자체 앱 개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⁹⁾ 구글은 동일한 목적성을 가진 '안드로이드 웨어' OS가 있었다. 개방의 대명사였던 구글의 관대함은 구글 자신의 마당에서의 자유로움만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IT 기술의 영역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고, 이젠 점차 그 영역이 TV와 같은 가전기기, 자동차 등의 기기에 적용되는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시대, 모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는 사회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다.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애플과 구글이 선점하여 자리를 잡았듯,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는 곧 기회와 위기이다.

스마트폰에서는 iOS와 Android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부상하고 있는 웨어러블 시장은 아직 절대강자가 없다. 타이젠은 기어 시리즈, 스마트 TV, 카메라 등에 접목되면서 그 플랫폼을 점차 확대시켜가고 있고, 아직은 안드로이드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삼성은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타이젠의 생태계 구축과 자체 앱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 결국, 돌아서 iOS와 Android가 버티고 있는 시장으로 진입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타이젠 협회라는 조직이 존재하지만, 실상 삼성에서 독자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국이고, 협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인텔 또한 자사

